

한중 현대시에 나타난 베이징의 표상과 이미지의 변모 양상*

조성환**

【목 차】

1. 들어가며
2. 베이징의 표상과 이미지의 변모 양상
 - 1) 베이징 성
 - 2) 천안문 광장
 - 3) 전문역(경봉선 철로)
 - 4) 베이징의 실핏줄 호동
 - 5) 도심의 허파 공원
 - 6) 신·구 베이징 사람들
3. 나가며

【초록】

본 연구는 5·4운동 이후 1910년대부터 개혁개방 이후인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에 베이징을 묘사한 시를 큰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분석 대상 작가들은 중국, 타이완, 한국 작가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들 작품에 표출된 베이징 이미지와 이들의 표상이 시대가 흐를수록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 변모 과정을 도출했다. 베이징 현대시를 베이징 성, 천안문(天安門) 광장, 전문역(前門驛), 호동(胡同), 공원과 신·구 베이징 사람들로 범주화하여 베이징의 빛과 그림자를 중국 현대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베이징에 산재한 인문·자연·조형 경관에 대한 표상과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고 전파되며 유통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이미지, 베이징, 천안문, 전문역(前門驛: 경봉선 철로), 공원, 호동(胡同)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 S1A5B5A07043579).

** 전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강사 (62chosh@hanmail.net)

1. 들어가며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 도시이면서도 그곳에 잠재되어 있는 지층의 의미망은 간과되어 왔다. 현대,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과대 포장, 과대 심미화한 베이징 이미지를 내보낸 탓에 땅속에 덮인 역사는 밖으로 나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린후이인(林徽因)은 “도시는 돌로 만든 역사다.”라고 정의했다. 베이징의 성벽이 바로 베이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지금은 대부분 허물어 그 면모를 제대로 볼 수 없지만 베이징 성벽을 묘사한 시를 통해서도 중국의 자존심이 되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데 대한 시인의 애증의 감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엄연한 역사 도시였으며, 이를 보여주는 만리장성(1987), 주구점(周口店, 1987), 자금성(1987), 이화원(1998), 천단공원(1998), 명십삼릉과 청릉(2000) 등 세계문화유산이 이를 증명해준다.

중국은 ‘시의 나라(詩國)’라고 불릴 정도로 시가문학이 발달했다. 현대시도 마찬가지다. 장쉐명(張學夢)은 “시는 시대의 확성기”¹⁾라고 피력했다. 그만큼 시대적 아픔을 시속에 녹여내야 한다는 말이다. 반면에 어떤 시인은 세찬 풍파가 몰아치는 현실을 보고도 그러한 현실을 어둡고 담담하게 시속에 반영하기도 했다. 대척 지점에 서서 시를 써낸 작품을 함께 읽어야 당시의 베이징 문화지형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現代-民國 시기), 당대(當代), 신시기(新時期) 등 세 시기로 구분하여 이 기간에 선보인 베이징 시를 분석하고 이들 작품에 표출된 베이징 이미지와 이들의 표상이 시대가 흐름수록 어떻게 변해가는 지 그 변모 과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외국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도시의 이미지가 시에 반영되었는데 보들레르(1821~1867), 엘리엇(1888~1965) 등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 중국에선 이러한 현상이 1910년대 말기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시간대는 오사운동 시기부터 신시기에 이른다. 베이징을 묘사한 시인으로는 리신바이(李辛白), 저우쥔런(周作人), 류반농(劉半農), 후스(胡適), 선인모(沈尹默), 선젠스(沈兼士), 뤼자룬(羅家倫), 푸즈넨(傅斯年), 귀모뤄(郭沫若), 천멍자(陳夢家), 팡웨이더(方瑋德), 류멍웨이(劉夢葦), 벤즈린(卞之琳), 쉬즈모(徐志摩), 린후이인(林徽因), 윈이뉘(聞一多), 라오멍칸(饒孟侃), 후예핀(胡也頻), 장광츠(蔣光慈), 쯡커자(臧克家), 펑즈(馮至), 린경(林庚), 페이밍(廢名), 허치팡(何其芳), 리광톈(李廣田), 루위안(綠原), 아이칭(艾青), 정전뉘(鄭振鐸), 자즈(賈芝), 리지(李季), 웨이웨이(魏巍), 난싱(南星), 딩리(丁力), 궁류(公劉), 뉴한(牛漢), 두윈셰(杜運燮), 사오옌샹(邵燕祥), 베이다오(北島), 신디(辛笛), 장허(江河), 양렌(楊煉), 쉰우디판(鄒荻帆), 옌이(雁翼), 차오스친(曹世欽), 팡인(方殷), 퉁린(孔林), 리칭(犁青), 윈청선(溫承訓), 왕랴오성(王遼生) 그리고 타이완의 장위쥔(張我君), 류신허(劉心皇), 예웨이렌(葉維廉) 등이 있다. 대륙에서 자라서 타이완으로 이주한 작가들이 양안 교류 이후 베이징을 방문하고 지은 작품일 경우,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부각되어 향수(노스탤지어)가 우려난다. 이들은 대륙 작가와는 달리 장소나 공간에 대해 다른 시점으로 바라볼 것이다. 작가들의

1) 시에멘 지음, 김소현 옮김, 『중국 당대시 강의』, 학고방, 2008, p.31 재인용.

눈으로 보았던 공간이나 장소는 처음엔 자연공간으로 시작하여 주거공간으로 바뀌고 시일이 지나면 역사공간으로 기억되고 철거나 보수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미 공간으로 정착된다. 한국 작가로는 일제강점기 베이징을 방문하고 관련 시를 남긴 신규식(申奎植), 오상순(吳相淳), 심훈(沈熏), 임학수(林學洙) 등 작품을 찾아서 비교 분석할 것이다.

2. 베이징의 표상과 이미지의 변모 양상

민국(民國) 시대 베이징의 기념비적인 인문 경관 및 자연 경관, 명승지는 수없이 많으나, 그중에서 대표적인 곳을 골라 논의를 전개하고 끝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베이징 사람들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신·구 베이징 사람들의 이미지 변모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베이징 성

민국 시기의 베이징 성은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원이뉘(聞一多, 1899~1946)의 「태양의 노래(太陽吟)」(1922)에서는 베이징 성을 5·4운동 회상의 공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청의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 1906~1967)가 자금성(紫禁城)에서 쫓겨난 날(1924년 11월 5일)로부터 두 달 후에 지은 작품인 쉬즈모(徐志摩, 1896~1931)의 「남겨진 시(殘詩)」(1925)에서는 주인을 잃은 자금성의 처량함과 조롱어린 자조를 곁들이고 있다. 벤즈린(卞之琳, 1910~2000)의 「춘성(春城)」(1934)에서는 쓰레기더미로 묘사하고, 거기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을 “줄 끊어진 연(一只斷線的風箏)”으로, 베이징 성을 “나의 집이자 나의 무덤(你是我的家, 我的墳)”으로 설정한다.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 사건(蘆溝橋事件) 이후 베이징 성이 위협에 처하자, 정전되(鄭振鐸, 1898~1958)는 「베이핑을 지키자(保衛北平曲)」(1937)에서 풍전등화의 베이핑²⁾을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을 맹세한다.

保衛北平!	베이핑을 지키자!
保衛這可愛的古城,	사랑스런 고성을 지키자,
保衛這可愛的文化城!	사랑스런 문화 도시를 지키자!
我們以鐵和血來保衛北平!	우린 철과 피로 베이핑을 지키리라!
我們執着槍, 握着大刀,	우리는 총을 잡고 대도를 쥐고
我們與這古城共死生!	우리는 이 고성과 생사를 함께 하리라!

한편 사오옌샹(邵燕祥, 1933~)은 「베이징 성을 노래하며(歌唱北京城)」에서 사람들이 베

2) 중화민국이 건국한 1911년에 수도를 난징(南京)으로 정했으나 곧 베이징으로 옮겼다. 그 뒤에 베이징은 군벌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1928년 국민당 정부가 북벌을 단행하면서 군벌을 몰아내고 베이핑(北平)으로 강등시켰다. 1937년 화북(華北) 지역에 들어선 친일정부인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수도를 다시 베이징으로 정했으나, 1945년 중일전쟁이 끝나자 국민당 정부는 다시 베이핑으로 강등했다. 1949년 신중국이 수립되자, 베이징에 수도를 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징 성에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곡성(哭聲)’을 들을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묘사했지만, 신중국이 성립한 뒤에 나온 시에서는 긍정적이며 활기차게 표현된다. 뉴한(牛漢, 1923~2013)의 「베이징의 서쪽 교외를 찬미하노라(我贊美北京的西郊)」(1954)의 한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學生們去展開	학생들은
新的課文	새로운 과목을 배우러 가고
工人去迎向	노동자는
新的更大的工地	더 넓고 새로운 현장으로 간다
戰士去接受	전사는
緊張的訓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러 가고
幹部去起草	간부는
新的工作計劃	새로운 작업 계획을 초안하러 간다
園丁去栽種	정원사는
美好的花木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가꾸러 가고
主婦去購買	주부는
新上市的新稻米 ³⁾	시장에 햅쌀 팔러 간다

그밖에 리칭(犁青, 1930~)의 「베이징을 떠나며(別北京)」(1959)에서는 베이징 성을 ‘어머니’, ‘조국’으로 설정하여 묘사했다. 1959년 국경절 전야에 지은 윈청원(溫承訓, 1934~)의 「모친의 성(母親的城)」에서도 “어머니의 성”으로 묘사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베이징 성을, 5·4운동 직후엔 회상의 공간, 무덤, 곡성이 들리는 공간 등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면, 신중국 성립 이후엔 활기차고 긍정적인 공간으로 변모하여 ‘어머니의 성’, ‘조국’으로 대체된다.

2) 천안문 광장

천안문은 명나라 영락(永樂) 15년(1417)부터 짓기 시작하였는데 원명은 승천문(承天門)으로 명·청 시대 황성의 정문이었다. 청 순치(順治) 황제가 처음으로 베이징에 들어갔을 때, 천안문 위의 성루는 포화에 무너지고 동굴 모양의 출입구 다섯 개만 남아 있었다. 이에 순치 8년(1651)에 황성의 정문을 재건하고는 ‘천안문’으로 개명했다. 천안문은 베이징 시 중심에 있으며 베이징 성의 중축선(中軸線)에 놓여 있다.

천안문은 봉건왕권의 상징으로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친히 출정을 나갈 때는 천안문에서 조서를 반포하고 깃발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승리를 기원했고, 개선하고 돌아올 때는 천안문 중문으로 입성함으로써 사직의 안정을 보여주었다.

천안문 성루는 국장(國章)에도 들어있다. 그 앞은 천안문 광장이고 뒤는 자금성이며, 왼쪽은 노동인민문화궁(이전의 太廟)이고 오른쪽은 중산공원(원래의 社稷壇)이다. 1900년 8개국 연합군은 천안문에서 열병식을 거행하여 그들의 ‘성취감’과 망해가는 왕조에 대한 멸시를 표

3) 『人民文學』 1955년 제2기 발표.

현했다. 천안문은 봉건 제왕들이 권력을 전시하던 무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애국민주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현대에 들어서서 천안문 광장은 1919년 5·4운동, 1935년 12·9운동, 1949년 10·1 신중국 개국대전, 1989년 6·4천안문 사태 등 각종 굵직한 집회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뤄자룬(羅家倫, 1897~1969)의 「천안문 앞의 겨울밤(天安門前的冬夜)」에서 시인은 짙은 회색 먼지가 달라붙은 천안문 광장을 고독, 황량, 공포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끝없이 밀려오는 슬픔을 달래고 빛[광명]을 추구하고 있다. 원이뤄의 「천안문(天安門)」에서는 1920년대 베이징 하층민, 특히 인력거꾼의 구어를 운용하며 귀신이 가득한 베이징 성을 묘사하면서 어두운 밤에는 천안문 쪽으로 나다니지 말 것을 권유한다. 라오명칸(饒孟侃, 1902~1967)의 「천안문(天安門)」에서 천안문 광장은 밤에는 곡소리가 들리는 공간이며 낮에는 청원과 시원의 공간으로 설정된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총검에 다친 애국학생들이 죄인으로 다루어지는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하지만 신중국 성립 6주년 국경절에 지은 라오명칸의 「천안문」에서 광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져 리순다(李順達, 1915~1983), 왕충룬(王崇倫, 1927~2002) 같은 ‘노동영웅’들이 일구어낸 기적의 환호성 소리를 천안문 광장에 가서 들을 것을 독자에게 권유하고 있다. 1955년 5월 6일에 쓴 공류(公劉, 1927~2003)의 「5월 1일 밤(五月一日的夜晚)」에서도 사람의 바다에 모여 춤을 추는 천안문 광장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리지(李季, 1922~1980)의 「베이징에게(致北京)」(1953)에서는 “모든 길은 베이징으로 통한다(條條道路, 通往北京)”, 장커자(臧克家, 1905~2004)의 「‘10·1’ 서정(‘十一’抒情)」에서는 “전국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全國連成一條線)”고 묘사하면서 신중국 건설을 찬양했다.

같은 시각에서 벤즈린의 「천안문 사중주(天安門四重奏)」(1950)에서는 여기에서 싹을 틔운 1919년 5·4운동부터 여기에서 꽃을 피운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건립까지의 간고한 역사를 개괄하고 있다. 한편 타이완 출신의 작가 세웨하오(謝雪浩)의 「순간-무명의 용사에게 바치며(瞬間-致無名的勇者)」(1989)는 1989년 6·4 천안문 사태를 반영한 작품이다. 이 시의 주인공은 열아홉의 베이징 청년 왕웨이린(王維林)으로 서양에서는 ‘탱크맨(Tank Man)’으로 불리는데 천안문 광장의 탱크 앞길을 가로막는 사진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천안문 광장에는 인민영웅기념비가 우뚝 서있고 양쪽으로 인민대회당과 혁명역사박물관이 대칭으로 들어섰다. 인민영웅기념비는 1949년 9월 30일 초안을 잡고 전국에 디자인을 공모했다. 그것은 천안문과 정양문 성루로부터 각각 440미터 떨어져 이 사각형 광장의 대각선 교차점 위에 위치하며 도시의 중축선 위에 놓였다. 량쓰청(梁思成, 1901~1971), 린후이인(林徽因, 1904~1955) 부부가 이 기념비의 주요 설계자다. 이 비석은 37.94미터로 한백옥 난간이 있는 이중 평대 위에 놓았다. 비신 정면은 북쪽을 향해 천안문과 서로 호응하도록 했는데 ‘면남배북(面南背北)’의 중국 전통 건축의 관례를 깨트렸다. 이 공정은 1958년 5월 1일 노동절에 이르러 완공되었다. 귀모뤄(郭沫若, 1892~1978)의 「인민영웅비(人民英雄碑)」(1958)에서는 아편 전쟁부터 신중국 건설까지의 역사를 간결하고 힘찬 기세로 개괄하면서 인민영웅을 한껏 부각시켰다.

請看, 一百多年來的英雄形象,
犧牲生命, 爭取民族獨立解放;

보라, 백년 이래의 영웅 형상을
생명을 바쳐 민족독립해방을 쟁취했다.

前僕後繼, 左提右挈, 西殺東擋. 앞사람 넘어지면 뒷사람이 이어가고,
옆에서 끌어주며, 서쪽에서 죽으면 동쪽에서 막았다.

장허(江河, 1949~1989)의 「기념비(紀念碑)」(1980)에서는 혁명역사박물관을 “역사, 어제의 교훈(是歷史, 是昨天的教訓)”, 인민대회당을 “오늘, 박력과 미래(是今天, 是魄力和未來)”의 상상 공간으로 설정했다.

3) 전문역(경봉선 철로)

광서(光緒) 27년(1901)과 광서 32년(1906)에 경한선(京漢線)과 경봉선(京奉線) 철로가 정양문 옹성 동서 월장(月牆)까지 들어오면서 이 일대는 더 혼잡하게 되었다. 정양문 기차역의 정식 명칭은 ‘경봉철로 정양문 동부역’으로 ‘경봉철로 정양문 서부역’과 대칭을 이루며 각기 베이징의 남(武漢)과 북(奉天)을 연결했다. 이 기차역은 우아한 서양식 건축으로, 중앙에 거대한 아치형 천장이 높이 걸려 있었고, 기둥은 구름과 용이 새겨진 큰 벽돌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남쪽에는 돛형 지붕 형태로 꾸민 종루가 우뚝 서 있었다. 1900년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8개국 연합군이 물자를 수송하려고 철로를 여기까지 깔았지만 정식으로 역사를 지은 것은 1903년의 일이다.

루쉰(魯迅, 1881~1936)이 1912년 5월 5일 처음 베이징으로 올라올 때 이 기차역에 내렸는데⁴⁾, 이후 열네 번 이 기차를 타고 내린 정거장이 모두 전문 기차역이었다. 이곳은 민국 초기 베이징의 대외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전문 서부역을 화물 터미널로 삼았고, 동부역을 여객 터미널로 삼았다. 새로운 베이징역이 건설되면서 전문 동부역과 서부역은 58년 동안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이 정양문 기차역은 1958년에 철거되었다. 그해 베이징은 건국 10주년을 맞아 ‘10대 건축물’⁵⁾을 축조하는데 여념이 없었는데 새로운 베이징역이 1958년 12월부터 설계에 들어가 이듬해에 완공되었다. 이때부터 국제 열차도 새로운 베이징 역에서 운행하기 시작했다.

저우쥔런(周作人, 1885~1967)의 「경봉선 열차에서(京奉車中)」에서는 표를 사지 않고 탑승한 두 군인의 추악한 이미지를 가감 없이 묘사하며 이러한 사회현상을 질타하고 있다. 기차는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교통매체이며, 기차역은 이별의 공간이기도 하다. 뤼자룬의 「전문역에서 프랑스로 가는 초승을 전송하며(往前門車站送楚僧赴法)」에서는 오사운동 때 함께 시위에 참가하여 「오사선언(五四宣言)」을 기초한 쉬더항(許德珩, 1890~1990)이 파리 유학을 떠나가는 장면을 묘사한 전송시다. 오사운동과 육삼운동을 회상하면서 쉬더항을 전송하고 있다. 페이밍(廢名, 1901~1967)의 「전문역에서 소년 손님을 떠나보내고(火車站走了少年客)」도 바오딩(保定)으로 가는 청간성(程侃聲, 1908~1999)을 전문역에서 송별하는 이별시다. 한편,

4) 魯迅, 『魯迅日記·上卷』, 人民文學出版社, 1976, p.1.

5) 십대 건축물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수도 베이징에 세운 인민대회당, 중국역사박물관과 중국혁명박물관(2003년에 중국국가박물관으로 통합),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민족문화궁(民族文化宮), 민족호텔(民族飯店), 조어대국빈관(釣魚臺國賓館), 화교빌딩(華僑大廈), 베이징기차역(北京火車站), 전국농업전람관과 베이징공인체육장(北京工人體育場)을 가리킨다.

스즈(食指)의 「네 시 팔분의 베이징(这是四點零八分的北京)」(1968)은 문화대혁명 시기 산촌이나 농촌으로 지식청년들을 나르던 네 시 팔분 베이징 발 기차를 두고 전송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광경을 포착하고, 아울러 자신의 내면을 연결시킨 역사적 기록이라 하겠다. 즉 스즈는 베이징의 기억을 네 시 팔분으로 맞추고 있다. 린망(林莽)의 「열차기행(列車紀行)」(1973)에서는 기차를 “나의 전부를 싣고 가는” “역사”로 설명하고 있다.

4) 베이징의 실핏줄 호동

베이징의 길은 각 성문을 간선의 중축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베이징의 대로는 널찍하고 곧게 이어져 있고 그 내성 간선은 남북 방향으로, ‘호동’은 동서 방향으로 뻗은 것이 많다. 호동은 베이징의 구 성내에 산재한 골목길을 일컫는 베이징 식 명칭이다. 호동은 베이징의 각 골목을 이어주는 실핏줄,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 베이징 호동의 숫자에 대해 시대마다 다른데 1944년 일본인 다다 데이치(多田貞一)가 쓴 『베이징지명지(北京地名志)』에는 3,300개, 1982년 중국 전망출판사의 『고금 베이징(古今北京)』에는 4,550여 개, 1986년 베이징 연산출판사(燕山出版社)의 『실용베이징가항지남(實用北京街巷指南)』에는 3,665개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구성(舊城) 개조운동이 시작되어 수많은 호동의 형태가 바뀌었고 지명으로만 남아있는 것도 많다.

현대시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호동으로는 동교민항(東交民巷), 철사자호동(鐵獅子胡同), 석호호동(石虎胡同) 7호, 감우호동(甘雨胡同) 등이 있다. 장광츠(蔣光慈, 1901~1931)의 「베이징(北京)」(1925)에서는 공사관 거리인 동교민항, 중앙공원을 묘사하면서 베이징을 원기를 잃은 “어두침침한 지옥(北京是灰黑的地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 신규식(申奎植, 1880~1922)의 「옛 공사관을 찾아서(過舊公館)」에서는 조국을 잃어 조선공사관⁶⁾ 자리가 프랑스 동방회리은행(東方滙理銀行: Banque de l'Indochine)으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고 있다. 1911년 왕화룡(王華隆)이 제작한 『베이징내외성상도(北京內外城詳圖)』를 보면 옥하교관 자리에 회리은행이 들어섰다. 옥하교관 자리에는 지금의 동성구(東城區) 전문동대가(前門東大街) 베이징시 공안국이 들어섰다.

‘철사자호동’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은 ‘3·18’ 참변으로 말미암는다. 1926년 3월 12일 펑위샹(馮玉祥, 1882~1948)의 국민군(國民軍) 부대와 봉계(奉系) 군벌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친일 성향의 봉군(奉軍)은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에 기대어 일본 군함이 호위하여 텐진(天津) 다구항(大沽港)으로 들어와 국민군을 포격하였는데 수비군으로부터 정면 공격을 당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분노하여 영미 등 팔개국과 결탁하여 3월 16일 당시의 북양군벌 단치루이(段祺

6) 명·청 이래로 조선 사절단이 주로 머물렀던 옥하관(玉河館)은 조선관, 고려관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터는 지금의 최고인민법원 자리다. 이후 러시아 사절이 옥하관을 차지하자, 조선 사절단은 옥하관에서 남쪽으로 한 블록 떨어진 옥하교관(玉河橋館)을 사용했다. 그리고 광서(光緒) 연간 중엽 이후엔 명칭이 주청국 조선공관으로 바뀌었다. 1902년에 박제순(朴齊純, 1858~1916), 1903년에 박태영(朴台榮), 1904년에 민영철(閔泳喆)이 부임하여 이 공관에 머물렀다. 하지만 1905년 11월 18일 을사늑약에 따라 민영철이 이임하고 공관의 관리권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 朴現圭, 「明清시대 北京 朝鮮使館 고찰」, 『중국사연구』, 제82집, 2013, pp.146-148.

瑞, 1865~1936) 집정부(執政府) 측의 다구항의 군사 시설을 철수시키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를 ‘팔국통첩(八國通牒)’이라 한다. 3월 18일 오전에 베이징의 애국 청년들과 군중 5천여 명이 공산당원 리다자오(李大釗, 1889~1927) 등의 지도로 천안문 광장에서 집회하고 항의하는 시가행진을 벌였다. 모임이 끝난 뒤 시위대는 주권을 상실한 치욕적인 ‘팔국통첩’을 거절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시위대가 집정부 광장 앞에 이르자 탄치루이는 결국 맨손의 학생과 군중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 갑자기 총성이 들리자 대중들이 놀라 혼돈에 빠졌으며 이때 학생 47명이 총탄에 쓰러져 사망했고 2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희생된 학생 중에는 겨우 13세의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다.⁷⁾

라오명칸의 「3월 18일-철사자호동의 유혈 사태를 기념하며(三月十八-紀念鐵獅子胡同大流血)」(1926)는 바로 ‘3·18’ 참사를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체로 넉넉히 암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平兒，今天街上這般冷靜，
難道外面出了什麼事情?”

“是的，如今這種事情太多，
提起來真長，問它做什麼!”

“不是，我昨晚夢見你兄弟，——
起來又聽見烏鴉亂啼；……”⁸⁾

“평아, 오늘 거리가 이처럼 조용한데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

“예. 지금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말하자면 정말 길어요, 뭐하려고 물어보세요.”

“아니다. 내가 어젯밤에 네 동생의 꿈을 꾸서
일어나보니 까마귀와 까치 울음소리만 들리더구나.”

철사자호동의 시위현장에 있다가 피를 묻히고 돌아온 큰아들을 본 모친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작은 아들을 걱정하며 어젯밤 뒤숭숭한 꿈자리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 철사자호동은 지금 장쯔중로(張自忠路)로 바뀌었다.

쉬즈모의 「석호호동 7호(石虎胡同七號)」(1923)는 시 제목이면서 주소다. 당시 서단패루(西單牌樓) 석호호동 7호는 베이징 송파도서관(松坡圖書館) 제2관의 주소로 외국 서적을 전문적으로 소장하던 곳이었다. 쉬즈모는 이 도서관의 영문 서적 담당자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사망 이후 부친이 이 도서관에 있던 서지마의 책을 모두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위의 시에 출현하는 쟈옹(蹇翁: 蹇季常)의 조카 쟈센아이(蹇先艾, 1906~1994)도 이 호동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

송파도서관의 전신인 쾌설당(快雪堂)은 북해(北海) 북쪽의 언덕에 있다. 자희 태후가 겨울이 되면 눈을 감상하던 곳이라 전해지며 오른쪽엔 오룡정(五龍亭)이 있고 왼쪽엔 구룡벽(九龍壁)과 천왕전(天王殿)이 있다. 도서관 안에는 세 동의 건물이 있는데 두 동의 도서관이고 한 동의 차이공사(蔡公祠)이다. 1916년 11월 8일 차이어(蔡鐸, 1882~1916) 장군이 일본 후쿠오카병원(福岡醫院)에서 병사했는데 그 해 12월 5일 량치차오(梁啟超, 1873~1929)는 상하이에서 차이어 장군의 공제(公祭)와 사제(私祭)를 지내고 아울러 송파도서관을 만들 것을 제창했다. 송파는 차이어의 호다. 처음엔 상하이에 송사(松社)를 두었다가 1923년 량치차오가 리위안홍(黎元洪, 1864~1928) 총통에게 상서를 올려 이 일을 제기했다. 그래서 북해공원의 쾌

7) 江長仁 편, 『三一八慘案資料匯編』, 北京出版社, 1985.

8) 『晨報副刊』 1926.03.25.

설당을 내놓아 1923년 11월 4일 송파도서관을 정식으로 개관하고 량치차오가 관장으로 부임했다. 이후엔 몽장학교(蒙藏學校), 신중국 성립 후엔 민족학원 부중(附中)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감우호동을 묘사한 시로는 신디(辛笛, 1912~2004)의 「라일락, 등불 그리고 밤(丁香, 燈和夜)」(1936), 「죽음 드리운 도시(垂死的城)」(1936), 난싱(南星, 1910~1996)의 「멀리 떠난 사람에게(寄遠)」 등이 있다.

감우호동은 동성구(東城區) 서남쪽에 있으면 동쪽은 동사남대가(東四南大街)에 이르고, 서쪽은 왕부정대가(王府井大街)에 이른다. 이 골목 이름을 건어호동(乾魚胡同)이라고도 부른다. 명대 이 호동 안에 원극전(元極殿), 천주당이 있었다. 원극전은 명대에 짓기 시작했으며 원명은 현극관(玄極觀)이었다. 만력(萬曆) 32년(1604) 가을부터 수리 작업에 들어갔으며 조봉정(趙鵬程)이 비기(碑記)를 지었다. 청 강희 연간에 강희 황제의 이름 ‘현엽(玄燁)’을 피하기 위해 ‘원극관’으로 개명했다. 옹정 4년(1726)에 이곳에 회동관사(會同館舍)를 지어 외국 사신의 숙소로 제공했으나 건륭 2년(1737)에 폐쇄했다. 선통(宣統) 연간에는 감우호동이라 불렸다. 민국 시기에 이 골목에 베이핑증권교역소(北平證券交易所), 협성기차행(協成汽車行), 브라질공사관(巴西使館) 등이 들어섰다.

그밖에 화가 예첸위(葉淺予, 1907~1995)도 감우호동 6호 거주한 적이 있다. 시인이자 산문가 난싱의 산문집 제목이 아예 『감우호동 6호(甘雨胡同六號)』(北平文藝時代社, 1947년 3월 초판; 海豚出版社, 2010)로 되어 있다. 그가 거주했던 집을 제목으로 삼았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문인들은 대부분 호동이나 사합원(四合院)에 거주했다. 실제 주거공간이자, 창작의 영감을 자극하고 부여하는 아련한 추억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베이징의 거리 풍경을 묘사한 시로는 벤즈린의 「서장안가(西長安街)」(1932), 북장가(北長街)를 묘사한 저우쥔런의 「길에서 본 풍경(路上所見)」, 북하연(北河沿)을 묘사한 위핑보(俞平伯, 1900~1990)의 「흙 먼지(風塵)」(1921), 류명웨이(劉夢葦, 1900~1929)의 「북하연의 밤(北河沿底夜)」(1926) 등이 있다.

이처럼 도심의 실타래 역할을 하는 골목은 베이징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일상사가 녹아있는 공간이며, 시인들에겐 시적 영감을 부여한 심미공간이기도 하다.

5) 도시의 허파 공원

공원은 근대의 산물이자 근대화 과정 중의 영육의 산물이기도 하다. 공원은 또한 도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이자 만남의 광장이다. 생계유지에 찌든 도시민, 고급문화를 누릴 여건이 되지 못하는 도시 하층민과 노인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이들에게 볼거리[경관, 인파, 음악회, 전시회, 결혼식 등]를 제공해주는 도시의 ‘허파’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답게 공원이 가장 많아서 ‘공원의 도시’라고도 부를 수 있다. 향산공원(香山公園: 西山), 경산(景山: 煤山), 북해공원(北海公園), 곤명호(昆明湖), 중산공원(中山公園), 도연정공원(陶然亭公園), 원명원(圓明園), 이화원(頤和園), 자죽원공원(紫竹院公園), 단결호공원(團結湖公園), 수대자공원(水碓子公園), 홍령건공원(紅領巾公園), 대관원(大觀園), 세계공원(世界公園) 등과 지금은 사라졌지만 중화민국 시대의 공원 등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아 베

이정 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있다.⁹⁾

그중에서 중산공원을 묘사한 시로는 선인모(沈尹默, 1883~1971)의 「중산공원의 이월람(公園裏的二月藍)」, 위펑보의 「겨울밤의 공원(冬夜之公園)」(1918), 류반농의 「끓는 듯 뜨겁다-국경일 저녁에 중앙공원에서(沸熱: 國慶日晚間在中央公園裏)」(1918) 등이 있는데 기존의 연구 성과가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대신 한국인 박세영(朴世永, 1902~1989)이 이방인의 시각으로 묘사한 「북해와 매산」 전문을 살펴보자.

도시가 왜 이렇게 요란합니까,
당신은 높직이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참은 평온하더니
오늘은 난데없이 탄환이 허리를 확-확-지나갔소.

나는 소리만 듣습니다,
높은 공장이 둘러서 더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 도시를 지켜왔지요,
그러나 아무 공로도 없이
싸움만 치르고 있지요.

성문도 헐어지고 변함이 많겠지만,
사직(社稷)에서는 늘 남너 떠드는 소리가 그리치 않는구려.

성문이 헐려도
그들은 다시 쌓고야 맙니다.
그러나 함덕문(哈德門)은 많이 상하였습니다.
탄환을 많이 맞았습니다.

사직은 중앙공원이 되어
국치기념비도 새로 썼지만,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남녀들은
차 마시기에만 취했습니다.

쉽기도 합니다.
이 몸이 눈물이 되어도
모자랄 느낌을 어찌하오,
도시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나요?

몇 백 년 전의 먼지는
아직도 온 도시에 덮여 있어

9) 趙誠煥, 「북경의 녹색[Green] 문화공간 체험-중산공원의 기억」, 『中國語文學』, 제50집, 2007.12, pp.77-78 참조.

대도(大都)를 덮고 있지만,
그들은 괴로움도 모르는 듯이
거의 햇발을 못 보는 깊은 집에서
아직도 헤어날 줄 모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도시를 내버렸다니요,
그렇게도 어둡다니요.

청조의 황거(皇居)는 지금 집정자도 없는 총통부가 되었습니다.
궁문의 하나였던 서안문(西安門)은 쓰러져가고,
상가의 소용없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경궁(天慶宮)은 시민의 집이 되었을 뿐이요.

그것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요.
황폐한 도시는 깎 날이 언제일까요,
애국자, 대인물, 혁명가, 외교가도 드물어가고,
낱아빠진 군벌의 마수는
전시(全市)를 요란케 하고 피곤케 하였습니다.
이 사이는 심양의 마장(魔將)이
맘 놓고 넘나듭니다.

내가 당신이 되었다면 이 마도(魔都)를 사를 터이요,
이 썩어빠진 고도(古都)를 사를 터이요.

마음은 있습니다.
허나 그뿐인 줄 아시요,
이 도시는 몽롱한 독연(毒煙)이 언제나 안개와 같이 자욱해 있지요,
그들은 모든 양육점(羊肉店)에선 반항치도 않는 양을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이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르는 예술도 찾을 수 없이
고전예술만은 낡은 무대에서 볼 수 있지요.

오-비참한 이 연경(燕京)!
당신은 터질 때가 왔습니다.
경도(慶都)를 사를 때가 왔습니다.

옛날 폼페이 시는 가엾기도 했지요,
베수비오 산은 터질 때로 터져서,
이 몸이 그 산은 못 되었을망정,
다시 병란이 있을 땐,
이 몸은 대포 맞기를 기다려 타고 터져 온 황도(荒都)를 사르면,
새로운 건설자는 나오리다.

그때는 죽음에서 함께 승리를 노래합시다,
그대와 나는 기쁨에서 노래합시다.
죽음을 기다리는 이 고도!
혼수에 빠진 이 대륙은 깰 날이 아득하구려.

전국에 횡행하는 군벌이 없어지기 전에는
몇 백 년이 또 지나도 변함이 없겠습니다.
당신이 듣듯이 음조 높은 나팔 소리는
모이라는 명령인가 보인다.
재물을 꿈꾸는 병사에게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요.

당신은 현상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도
몇 백 년을 나와 함께 꿈꾸었지요.

1926년에 쓴 위의 시는 박세영의 시집 『산제비』(중앙인서관, 1938년 5월)에 수록되었고, 위의 시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 기행시가 여기에 들어있다. 박세영은 중국 유학파다. 그는 1922년 3월 배재고보를 졸업하고 4월에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서 혜령영문전문학교(惠齡英文專科學校)에 입학하여 수학했지만, 학비를 댈 길이 없어서 중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기사(1922년 4월 4일자 7면)에 의하면, “금년 봄에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우량한 성적으로 졸업한 박세영, 최진철(崔進哲), 이홍우(李泓雨), 조홍식(趙弘植) 등 네 사람은 평소부터 문학에 취미를 가졌는바, 이번에 멀리 중국 남경의 금릉(金陵)대학의 문과에 입학하려고 지난 2일 밤차로 각각 출발하였더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하이 유학설과 난징 유학설이 엇갈리고 있다.

그가 상하이 유학 당시 때마침 심훈(沈熏, 1901~1936)을 만나 민족운동에 투신할 꿈을 불태우기 시작한다. 여하간 그는 이 무렵에 상하이, 난징, 베이징, 톈진, 만주 등을 주유하면서 「강남의 봄», 「양자강», 「월야의 계명사», 「화원이 보이는 이층집», 「오월의 앵도원», 「북해와 매산», 「포구 소묘», 「명효릉」 등 시작을 하던 중 배재고보 동기인 송영(宋影, 1903~1977) 등이 본국에서 1922년 9월에 사회주의 문화단체인焰군사(焰群社)를 조직하고 기관지 『焰군』을 간행하려고 원고를 청탁하자, 『焰군』 창간호에 「양자강반에서」라는 시를 보내는 등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焰군』 1호는 제작까지 마쳤으나 제작 다음날 출판금지 처분을 받아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박세영은 1924년에 귀국하여 송영, 이기영(李箕永, 1895~1984), 윤기정(尹基鼎, 1903~1955), 박영희(朴英熙, 1902~?), 임화(林和, 1908~1953) 등과 교유하다가 카프맹원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창작활동과 사회활동을 시작한다.

위의 시에서 박세영은 황폐화한 베이징의 여러 이미지[사직단, 합덕문, 대도, 서안문, 천경궁 등]를 통하여 그는 시대적·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표현하고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이는 그가 식민지적 현실에 놓인 지식인이었기에 중국의 현실과 중국인들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관심을 가졌다. 위의 시에서 박세영은 이탈리아의 고대 도시 폼페이 시와 베세비어스 산을 끌어다가 “터질 때가 온” 베이징과 대비하면서 “새로운 건설자가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그가 월북하여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하고 쓴 『몽고 방문시초』 등에서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공원 가운데 중국인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안겨준 곳은 원명원과 이화원이다. 리다자오의 「원명원 옛 터를 조문하며(吊圓明園故址)」(1917)에서는 1860년과 1900년 두 차례에 걸쳐 외국 연합군이 파괴하여 무너진 담장과 깨진 기왓장만 남은 원명원의 처량한 풍경을 묘사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나온 시에서는 폐허의 탄식에서 우뚝 일어나는 미래의 희망과 다짐을 보여준다. 양렌(楊煉, 1955~)의 「깊은 생각: 원명원 터에서 써서 조국에 바치는 시(沉思: 寫于圓明園遺址并獻給祖國的詩)」¹⁰⁾, 옌이(雁翼, 1927~2009)의 「원명원에서(在圓明園)」의 경우가 그러하다.

不要把母親的被辱,	어머니의 치욕을
當作藝術來欣賞吧,	예술로 여겨 감상하지 마라
也不要給無能的統治者,	그리고 무능한 통치자에게
星點的同情. ¹¹⁾	조금이라도 동정표 주지 말자

청대에 여름별장으로 불렸던 이화원도 원명원과 마찬가지로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엄청난 인력과 경비를 동원하여 만든 이화원의 곤명호와 만수산 을 두고 아이칭(艾青, 1910~1996)은 「만수산(萬壽山)」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湖的深度	호수의 깊이
山的高度	산의 높이
是奴隸勞動的總和	노예노동의 총화(總和)이리라

爲了一個女人的夢想	한 여인의 꿈을 위해
有多少人在湖底沉寃 ¹²⁾	늘 바닥에 묻힌 원혼 얼마였던가

이처럼 베이징 도심을 정화하는 ‘허파’ 구실을 했던 공원은 근대에 외세의 상처와 고난을 딛고 공원 본연의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 신·구 베이징 사람들

그리고 한·중 현대시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중화민국 시기에는 찻집주인, 인력거꾼, 샤오빙(燒餅) 판매상, 노점상, 신문팔이 소년, 거지, 신부(新婦) 등 주로 사회 하층민의 군상이다. 벤즈린의 「몇 사람(幾個人)」은 1930년대 베이징의 거리 풍경과 무미건조한 세대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같은 작가의 「쓰디쓴 빗물(苦雨)」에 출현하는 인물은 찻집주인, 인력거꾼, 샤

10) 『青春』 1981년 제12기.

11) 옌이, 「원명원에서」, 『詩潮』, 1987년 제4기.

12) 『海韻』 1980년 9월 창간호.

오빙 판매상 등 베이징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인물이다. 쉬즈모의 「거지야, 꼴 좋다 (叫化活該)」(1923)¹³⁾와 한국 심훈(沈薰, 1901~1936)의 「북경의 걸인」은 거지를 묘사하였다.

세(歲) 기미(己未) 맹동(孟冬)에 초췌한 행색으로 정양문(正陽門) 차참에 내리니 걸개(乞丐)의
때 에워싸며 한 분[分]의 동패(銅牌)를 빌거늘 달리는 황포(黃包) 차상(車上)에서 수행(數行)을
옳다.

나에게 무엇을 비는가?
푸른 옷 입은 인방(隣邦)의 걸인이여
숨도 크게 못 쉬고 쫓겨나온 내 행색을 보라,
선불 맞은 어린 짐승이 광야를 헤매는 꼴 같지 않으나.

정양문 문루 위에 아침 햇살을 받아
필필 날리는 오색기를 치어다보라
네 몸은 비록 헐벗고 굶주렸어도
저 깃발 그늘에서 자라나지 않았는가?

저리거리의 병영의 유랑(囀囀)한 나팔 소리!
내 평생엔 한 번도 못 들어보던 소리로구나
호동(胡同) 속에서 채상(菜商)의 외치는 굵은 목청
너희는 마음껏 소리 질러보고 살아왔구나.

저 깃발은 바랬어도 대중화(大中華)의 자랑이 남고
너의 동족은 늙었어도 ‘잠든 사자’의 위엄이 떨치거니
저다지도 허리를 굽혀 구구히 무엇을 비는 고?
천년이나 만 년이나 따로 살아온 백성이어늘-

때 묻은 너의 남루(襤褸)와 바꾸어준다면
눈물에 젖은 단거리 주의(周衣)라도 벗어주지 않으랴
마디마디 사무친 원한을 나눠준다면
살이라도 저며서 길바닥에 뿌려주지 않으랴
오오 푸른 옷 입은 북국의 걸인이여!

위의 시는 심훈이 기미년(1919년) 12월에 베이징에서 지은 작품이다. 베이징 정양문 기차역에 내린 심훈이 그의 뒤를 뒤따라오며 구걸하는 걸인들을 보고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쫓겨나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잠든 사자’의 위엄을 여전히 떨치고 있는 땅에서 살아온 ‘푸른 옷 입은 북국의 걸인’ 신세가 심훈 자신의 처지보다 나음을 말하고 있다. 당시 망국노가 되기 싫어서 이역으로 망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심훈의 심사를 엿볼 수 있는 시이다.

13) 『晨報六周年紀念增刊』 1924.12.01.

선인모와 후스(胡適, 1891~1962)의 「인력거꾼(人力車夫)」, 페이밍의 「인력거꾼의 아들(洋車夫的兒子)」(1923), 구제강(顧頤剛, 1893~1980)의 「봄비 내리는 밤(春雨之夜)」, 원이뤄의 「번개 다리(飛毛腿)」, 한국 오상순(吳相淳, 1894~1963)의 「방랑의 북경」에서는 비참한 생활을 꾸려가는 인력거꾼을 각자의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펑즈(馮至, 1905~1993)의 「‘석간신문’-신문팔이 소년에게(‘晚報’-贈賣報童子)」(1926)는 신문팔이 소년이 외치는 ‘석간신문’ 소리를 듣고 시인은 ‘사랑’의 메아리로 알아듣지만, 어느 집 하나 그 소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한편 한국 임학수(林學洙, 1911~1982)의 「북경의 신부」(1939)와 오장환(吳章煥, 1918~1951)의 시¹⁴⁾에서는 이국정조(exoticism)를 풍기는 필치로 베이징의 신부를 묘사하였다.

반면에 신중국 수립 후의 베이징 시민은 활기로 넘쳐난다. 아이칭의 「“좋아!”(“好!”)」(1955)에서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동장안가와 서장안가에 설치되었던 4개의 패루(牌樓)를 철거하는 노동자 군상을 그렸다. 귀모뤄의 「베이징 송가(頌北京)」(1959)에서 알 수 있듯이 건국 10주년을 위해서 1958년에 제시된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의 슬로건으로 ‘다쾌호생(多快好省: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더 절약하자)’을 내세웠다. 이들 시에 묘사된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희망으로 부풀어 있으며,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와 같은 영도자와 항일영웅, 노동영웅을 칭송하는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나가며

베이징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공간이다. 현재의 베이징 모습을 한 겹 한 겹 걷어내면 과거와 전통의 베이징 모습을 고스란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191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베이징의 과거를 묘사한 한·중 현대시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중화민국 시기에 나온 시는 대부분 어둡고 우중충한 이미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신중국 수립 후의 베이징 이미지는 역동적이고 활기로 가득 차있다.

첫째, 베이징 성은 민국 시기에는 ‘오사운동 회상의 공간’, ‘쓰레기더미’, ‘주인을 잃은 황량함’으로 설정하여 묘사했다면, 신중국 수립 후에는 ‘조국’, ‘어머니의 성’으로 묘사하였다.

둘째, 천안문 광장은 민국 시기에는 ‘청원과 시위 공간’, ‘애국민주운동의 발상지’로 묘사하였으나, 신중국 성립 후에는 ‘노동영웅이 일구어낸 기적’, ‘모든 길이 베이징으로 통하고’, ‘전국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신중국의 건설 이미지로 변모한다.

셋째, 전문역은 민국 시기에는 ‘무임승차하는 추악한 군인의 이미지’, ‘이별의 공간’을 묘사하였다면, 신중국 성립 후에는 1959년에 완공된 새로운 베이징 역의 “나의 전부를 싣고 가는” “역사”적 이미지를 묘사하였다.

넷째, 베이징의 실핏줄 역할은 하는 호동은 민국 시기 작가들이 직접 살았거나 역사적 참변을 목도한 베이징의 거리 몇 곳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이들 거리의 변천 혹은 그 과정이야

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다홍물 들인 북경 여자의 가냘픈 손톱/싸늘한 찻잔에 비치고/메이 파즈/장안의 구관조도 말이 다르다.”

말로 역사 도서관, 역사 교과서이자 텍스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베이징에 상주하는 한국인이나 교포들에게 베이징을 바라보는 심미안을 부여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베이징의 허파 구실을 하는 공원의 변모 과정을 분석했다. 공원은 근대의 산물이자 근대화 과정의 용역의 산물이기도 하다. 역사 도시 베이징에서 거주했던 도시민과 고급문화를 누릴 수 없었던 도시 하층민과 노인들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신·구 베이징 시민 군상을 분석했다.民国 시기에는 주로 찻집주인, 인력거군, 샤오빙 판매상, 노점상, 신문팔이 소년, 거지, 신부 등 주로 사회 하층민이 등장하지만, 신중국 성립 후에는 영도자, 항일영웅, 노동영웅을 포함하여 활기가 넘치는 시민들이 등장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베이징을 묘사한 모든 시를 다루지 못했다. 미진한 부분은 훗날 ‘시로 읽는 베이징 문화 기행’(가제) 같은 책자로 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陳夢家, 『鐵馬集』, 開明書店, 1934.
- 童懷周 편, 『天安門詩抄』, 人民文學出版社, 1978.
- 童懷周 편, 『天安門革命詩文選續編』, 北京第二外國語學院 漢語教研室, 1978.
- 許德鄰 편, 『分類白話詩選』, 人民文學出版社, 1988.
- 李麗中 편저, 『朦朧詩·新生代詩百首點評』, 南開大學出版社, 1990.
- 李麗中·張雷·張旭 選評, 『中國先鋒詩選』, 南開大學出版社, 1990.
- 本 社 편, 『八十年代詩選』, 上海文藝出版社, 1990.
- 張志民 主編, 『中國新文藝大系(1949~1966)·詩集』, 中國文聯出版公司, 1990.
- 艾 青, 『艾青全集(1~5권)』, 花山文藝出版社, 1991.
- 北京市文物事業管理局 편, 『北京名勝古迹辭典』, 北京燕山出版社, 1992.
- 趙 園 지, 『北京: 城與人』, 上海人民出版社, 1992.
- 周良沛 編序, 『中國新詩庫: 一集~五集』, 長江文藝出版社, 1993.
- 王 彬·徐秀珊 주편, 『北京地名典』, 北京文聯出版社, 2001.
- 陳平原·王德偉 편, 『北京: 都市想像與文化記憶』, 北京大學出版社, 2005.
- 白寶泉·白鶴群 지, 『北京街巷胡同分類圖志』, 金城出版社, 2006.
- 邵燕祥, 『我的詩人詞典』, 大象出版社, 2010.
- 김동훈·리선한·김영무·안의운 편역, 『신규식 시문집』, 한국문화사, 1999.
- 洪子誠·劉登翰 지/洪昔杓 역, 『중국당대신시사』, 신아사, 2000.
- 홍석표 지, 『辛笛詩選』, 문이재, 2005.
- 조성환 엮음, 『북경과의 대화: 한국 근대 지식인의 북경체험』, 학고방, 2008.
- 시에멘 지음/김소현 옮김, 『중국 당대시 강의』, 학고방, 2008.
- 쉬즈모 지음/이경하 옮김, 『쉬즈모 시선』, 지만지, 2010.
- 린망 외 지음/김소현·김자은 옮김, 『한밤 낮은 울음소리: 중국 현대대표시선』, 창비, 2013.
- 이희현, 『新月派詩研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4.
- 栗山千香子, 「聞一多「天安門」論考」, 『一橋論叢』, 제122권 제2호, 1999.
- 최옥산, 「칭포우(淸袍) 입은 조선 선비, 베이징의 단재」, 『민족문화사연구』, 제25집, 2004.
- 박정희, 「현대 중국문학 서술 속의 ‘베이징」」, 『중국어학』, 제28집, 2007.
- 조관희, 「표상 공간으로서의 베이징」, 『중국어문학논집』, 제40호, 2006.
- 조성환, 「북경의 녹색 문화공간 체험-중산공원의 기억」, 『중국어문학』, 제50집, 2007.
- 박정희·조명기, 「기억을 통한 베이징 후통의 생산: 국제관광과 문화텍스트를 중심으로」, 『중국어학연구』, 52집, 2010.
- 박정희, 「문학텍스트 속의 베이징 상상-경미문화 전통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59집, 2010.
- 윤형진, 「일본점령기 북경의 도시계획과 그 유산」, 『서울학연구』, 제42호, 2011.
- 박정희, 「베이징, 공간배치를 통한 문화정치」, 한국외대 『중국연구』, 제52권, 2011.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北京, 天安門, 公園, 前門驛, 胡同		
Key Words	영문	Beijing, Tian'anmen, Park, Qianmen Station, Hutong		
<div>The Changing Aspect of Symbol and Image of Beijing appeared in the Modern Korean and Chinese Poetry Works</div> <div>Cho, Sung-Hwan</div> <p>In this study, poems that describe Beijing were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into large categories from the 1910s May Fourth Movement(五四運動) to the 1980s when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p> <p>The targeted authors of the analysis focus on Chinese, Taiwanese and Korean writers, who drew on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Beijing's images and their images expressed in these works by time.</p> <p>Beijing Modern poetry were categorized as Beijing Castle, Tian'anmen Square(天安門), Qianmen station(前門驛), Hutong(胡同), park and a new/old Beijing peoples, and looked at Beijing's light and shadow through Chinese modern poetry.</p> <p>Although research on Beijing has accumulated to a certain extent, the so-called "Beijing atmosphere's Literature"(京味文學) and "Beijing School's Novel"(京派小說), the book does not show any achievements based on modern poetry that describes Beijing.</p> <p>This will allow us to look at how the figure of expression and images of the natural and natural landscape scattered in Beijing are created, disseminated, and distributed.</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조성환 / 趙誠煥 / Cho, Sung-Hwan		
	소 속	전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Em@il	62chosh@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11월 10일	심 사 일	2019년 11월 28일
	수 정 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